

존경하는 한국민간투자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한국민간투자학회장 후보로 출마한 남서울대학교 김항배 교수입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국민간투자학회는 민간투자 사업의 연구, 교육, 정책개발, 그리고 공공기관, 건설, 금융, 설계(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민간투자 사업 주체들 간의 협력 증진, 새로운 사업발굴 등 민관협력의 중개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투자에 대한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학회는 민간투자 분야에서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학회장이 되면 우리 학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5가지 약속과 함께,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 학회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주요 현안에 대하여 “한국민간투자학회 전문가의 목소리”를 내어 학회의 존재감을 확보하겠습니다.

(정부와 민간투자 정책 소통의 상시화) 전문가 언론 기고, 민간투자 브리프, 학회지 발간, 세미나, 정책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이슈 선점

둘째, 민간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여 민관협력의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관협력 분야 담당자의 당연직 임원참여 확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PIMAC, 국책 연구기관 민간투자 사업관리센터, 건설, 금융, 회계, 전문기술 분야 책임자를 민간투자학회 당연직 임원으로 위촉하여 협상자 역할 부여

셋째, 민간투자 사업 발전을 위해 학술적, 기술적 토대를 만들고 민간투자 사업 발전을 저해하는 관련 법·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투자사업 관련 법·제도의 개선) 새로운 민간투자 사업의 발굴 제안, 새로운 민간투자 사업방식, 사업 특성에 맞는 새로운 편익 항목의 개발 등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에 제안

넷째, 다양한 분야로 회원을 확대하고 정회원 회원 배가 운동을 통해 한국민간투자학회의 기반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회원의 다양화 및 정회원 배가) 민간투자학회 회원을 건설, 금융, 교통, 건축, 안전, 환경, 지능형 교통, 4차 산업 등으로 회원을 확대하고 단체회원, 일반회원으로 학회 회원 배가 운동 전개

다섯째, 매년 우수 민간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기관 포상제도를 실행하고 민간투자 사업 교육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우수사업 포상) 매년 분야별 우수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기관 표창 시행

(교육프로그램 확대) 민간투자 최고위 과정을 내실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체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준비

저에게 우리 학회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한번 약속한 사항들을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우리 학회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